

“감동체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책임에 최선을

도, 전국생활체육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1051명 참석...성공 대회 개최 의지 다져

전남도는 8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전남 각지에서 선발된 자원봉사자 1051명이 참석해 체전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고, ' 으뜸 전남 자원봉사! 함께 날자 감동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회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체전 기간 종합상황실, 개폐회식·경기운영 지원, 홍보 지원, 경기장 안내소 지원, 대회 안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돼 체전의 원활한 운영과 참가자 편의를 책임지게 된다.

발대식에는 명장한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태권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남도의원, 이상진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형석 전남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함께 다짐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축전 준비 상황에 대한 추진경과 보고, 자원봉사자 결의문 채택, 성공기원 퍼포먼스, 자원봉사자



전남도는 8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본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원봉사 기본교육은 체전을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을 위한 친절교육, 행사 기간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감동체전' 실현의 주체로서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

행사장에서 체험 부스가 운영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도 얻었다. 농구, 양궁, 축구 등 경기종목을 직접 체험하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심폐소생술 안전체험, 다짐엽서 쓰기, 포토존 등 다채로운 콘텐츠가 마련돼 현장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명장한 부지사는 "자원봉사자의 진절과 헌신이 곧 전남도의 얼굴"이라며 "지난 2년간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자원봉사자 한분 한분이 만들어낸 감동이 전국에 퍼져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임원, 관계자 등 약 2만명이 참가해 생활체육인의 축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PEOPLE

2025년 4월 9일 수요일

박노회 광양향교 진교 취임

제59대 광양향교 진교에 박노회 전 광양문화원장(사진)이 취임했다.



8일 광양시에 따르면 박노회 진교는 지난 7일 광양유림회관에서 정인화 시장을 비롯해서 기관 단체장, 유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박 진교는 순천사범학교와 조선대(법학과)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한 뒤 광양택시사를 운영해오면서 광양군사회정화협의회장, 광양군변영회장, 바른르게살기광양시협의회장, 백운장학회이사장, 전남공도협회장 등 크고 작은 사회단체장을 역임했다.

박 진교는 취임사를 통해 "유교의 조상숭배 사상은 우리 민족을 이끌어 준 유교로 발전했으나 오늘날 고유의 유교 정신과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며 "광양향교 유림들이 앞장서서 전통적 도덕 가치를 되살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통해 유교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통을 본받아 새것을 창출한다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자세로 광양향교가 운영 되도록 하고 공자님을 비롯한 선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서 행동감이 넘치는 향교, 시민들의 심터이자 배움터의 역할을 하는 향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향교는 세조 25년(1443년)에 세워진 유학 교육과 교화를 위해 지은 교육기관이었으나 갑오개혁(1894년) 이후 교육 기능은 없어지고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광주 서부경찰 성과관리 전략보고회 개최

광주 서부경찰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치안환경 조성에 나섰다.

서부경찰은 최근 청사에서 박종열 경찰서장 주재로 각 실·과장 및 계·팀장, 지역 관서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종합성과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성과 결과 분석을 토대로 올해 치안종합성과 향상을 위한 기능별 추진사항을 논의하고,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부경찰은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올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성과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추진한다.

박종열 서부경찰서장은 "광주경찰청과 공감대를 잘 형성하고 연초 수립한 계획대로 충실하게 추진해 달라"며 "특히 광주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용성 기자 yul404@gwangnam.co.kr

화순전남대병원, 로봇수술 2000건 돌파

최첨단 장비 구축...암 치료 수술·회복 시간↓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다빈치 로봇수술 2000건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최초로 지난 2009년 수술용 로봇 '다빈치'를 도입했으며, 2019년 11월 '다빈치Xi' 모델로 교체해 로봇수술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2023년 12월에는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단일절개장 로봇인 최첨단 시스템 '다빈치SP'를 추가 도입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로봇수술 시스템을 구축했다.

다빈치SP는 3차원 고화질 카메라와 로봇팔에서 나와 단일절개창을 통해 진전에 수술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수술기기는 3~4개 이상의 절개 부위를 만들지만 다빈치 SP는 1개의 절개창으로 보다 섬세하고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특히 수술 흉터가 작고 회복 시간도 빨라 환자들의 치료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의 로봇수술은 비뇨의학과, 내



분비외과, 대장항문외과, 간담체외과, 위장관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대부분의 진료과에서 암 치료를 위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축적된 로봇수술 노하우와 뛰어난 수술 결과는 타 병원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병원의 강점이다"며 "앞으로도 첨단 의료기 활용과 높은 만족도의 진료 제공을 위해 모든 의료진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산구 가족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광산구 가족센터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개선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참여를 시작으로 여러 정부기관, 민간, 학계 등이 협력해 동참하고 있다.

캠페인 선언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다.

캠페인에 참여한 장은미 센터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 상황은 정부와 모든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광산구 가족센터도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산구 가족센터는 다음 릴레이 참여 기관으로 송정다누리 청소년문화의집을 지목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관광공사,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동참

인구감소·고령화 문제 해결 인식 확산 기여

광주관광공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관광공사 김진강 사장과 직원들은 "아이의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광주관광공사가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에 참여하고, 단체사진을 기관 공식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했다. 또



한 다음 주자로 광주디자인진흥원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지목해 캠페인 확산을 이어갔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많은 지역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릴레이 캠페인이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 동부경찰, 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 앞장

광주 동부경찰은 최근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 범죄 예방과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며 청소년 사이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대처 방법 등을 중점 설명했다.

김중호 동부경찰서장은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로 협력해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해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할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성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신창동 보은사 목련화향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봉사 함께 할 광주VIP라이온스클럽 회원=심신 건강한 남·여 환영. 문의(회장) 010-3223-4311. (총무) 010-3365-0065.

부음 ▲박병배씨 별세. 박정환(광주FC 전력강회팀)씨 부 친상=8일.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745 평화원장례식장 405호. 발인 10일 오전. 문의 042-531-4444.

운세 (음력 3월 12일)

쥐 48년생 배우자에게 양보하고 다치지 마라
60년생 문서의 행운이 다가온다
72년생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84년생 중저렴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96년생 노력의 대가를 얻는다

토끼 51년생 소유하는 것을 지켜야 할 시기
63년생 생각을 확실하게 밝혀보라
75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
87년생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
99년생 성사의 핵심이 될 것

말 54년생 친척의 비보로 우울하다
66년생 숨겨진 능력이 발휘되는 시기
78년생 의지의 유무가 관건이다
90년생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다

돼지 57년생 지나친 아픔은 금물
69년생 활왕만 잘한다면 고부기치를 창출
81년생 하루 중일 바빠서 애를 먹었다
93년생 의외의 금전은 쉽게 사라지는 법

소 49년생 혼자서는 외로우니 단결하라
61년생 이득 볼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다
73년생 마음을 비우고 관리를 잘 하라
85년생 대동소이하니 일괄 처리해도 된다
97년생 기회가 왔으니 꼭 잡으라

황 52년생 일들이 풀리기 시작할 것
64년생 현재 갖고 있는 것까지 내어 주라
76년생 중복된다면 과감히 정리하라
88년생 체계적인 정리와 관리가 필요하다

양 55년생 간단하게 처분할 문제가 아니다
67년생 현재의 정황이 오래 가지 않을 것
79년생 아무리 애를 써도 피하기 힘들다
91년생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라

개 58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돈 거래를 하지 마라
70년생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본다
82년생 모든 것을 결정하기 어렵게만 된다
94년생 어려웠던 속제가 풀린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잠시 피하라 그 것이 심길
62년생 편곡을 섭렵한다면 유리한 입장
74년생 향후의 앞날은 막힘없이 트인다
86년생 경쟁자와 동반하는 면모이다
98년생 이상의 포임을 주의하라

범 53년생 달잡지 않은 사람이 찾아 온다
65년생 허탈해지는 날
77년생 자녀에게 행운이 따른다
89년생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목적

원숭이 56년생 부부 다툼은 이익이 없다
68년생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
80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하다
92년생 방향을 바꾸어 보라

돼지 59년생 노파심일랑 먼저 버려라
71년생 악간의 손해가 있었다
83년생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손해
95년생 늦지 않았으니 배워두라